

회생절차서 채권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



박 규 혁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도산절차(회생·파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법원이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도산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입해 채무자의 나머지 자산을 환가시켜 채권자들에게 채권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정 비율만큼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상당수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전부를 변제받으리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공익채권자들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각종 조세, 차입금 등 채무자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해 발생한 청구권 등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수시

로 변제해야 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도 우선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주문을 기재한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을 발령한다. 그런데 위 주문에는 ‘공익채권자’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담보물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회생담보권자들이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물을 처분해도 채권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자신의 채권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담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회생담보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의 90%에서 100%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고 그 자산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다가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기준으로 120% 정도

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회생담보권자들은 채권 전부 또는 그 상당수를 변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에서 M&A가 이뤄지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채무자 회사의 가치가 상당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후보들이 많아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이 붙는 경우다. 드물지만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수대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 간혹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M&A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에는 발빠르게 자신의 채권이 어느 정도 변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기자 수첩

박 정 익
(유통&라이프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이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12년 만에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복원시켰으며, 지난 17일에는 위스탕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까지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부터 베트남·호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인도·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일·한미일 정상회담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독일 및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거나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윤 대통령의 ‘국익우선주의’ 외교 방침은 투자 유치와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활발한 정상외교에 비해 국내 현

안 및 갈등을 풀기 위한 내치(內治)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정치의 갈등은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전 최장 기록은 339일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숨 가쁜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pathfinder@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3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회사 내부의 낭비 요소를 찾아 밑 빠진 독을 막도록. 48년생 가정사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이다. 60년생 부부간에 모처럼 외식으로 즐겁다. 72년생 시간약속을 잘 지켜라. 84년생 친구 일에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준다.	
 소	37년생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 하느니 그냥 주어라. 49년생 이성간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교제는 절대 아니다. 61년생 결정이 늦어져 일이 미뤄진다. 73년생 마가 끼니 초조하지 않도록. 85년생 상복 수로 형제 없는 운세.	
 호랑이	38년생 얄짤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니 문서 잘 살펴라. 50년생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눈앞의 이익도 놓친다. 62년생 상사의 협력을 논하지 마라. 74년생 늘 준비하자. 86년생 결혼 인연이 재물 이상으로 값있다.	
 토끼	39년생 날이 밝아 오니 고민이 사라진다. 51년생 마음은 바쁘지만 따라가지 못해 답답. 63년생 송사에 걸릴라 다툼에 참견하다. 75년생 같은 토끼띠와 일하다 중도 포기된다. 87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생기는 뻔뻔한 하루.	
 양	40년생 뒤늦게 경쟁자가 생기니 양보하자. 52년생 남녀간에 생각이 다르니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64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되살아나서 심신이 괴롭다. 76년생 아침부터 바빠진다. 88년생 지나친 간섭은 집착중세로 보일 수.	
 바람	41년생 참석해야 할 경조사를 잘 챙겨라. 53년생 작은 이익이 생겨서 활기차다. 65년생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77년생 계획이 생기니 의욕도 충전. 89년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이 깨어져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말	42년생 동업자와 문제가 있으나 서로 양보하게 된다. 54년생 음의 기운이 강하니 새이성에 눈을 뜬다. 66년생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라. 78년생 분노 조절 상태를 왜 직장에서 찾으려하는가. 90년생 오후모임에서 좋은 인연이 생긴다.	
 고양이	43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내일이 있다. 55년생 작은 이익 때문에 친구와 분쟁이 생기니 신중히 생각하라. 67년생 하루가 조용하다. 79년생 종일 컨디션 조절이 필요. 91년생 계약 문제는 오후에 물꼬가 트인다.	
 원숭이	44년생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다. 56년생 진행하는 일에 결과가 따른다. 68년생 영업에서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80년생 명성을 얻게 되어 행운이다. 92년생 여럿모이는 산행에서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닭	45년생 말띠와의 거래가 순조로우니 경사롭다. 57년생 요행을 바라거나 일을 미루면 손해. 69년생 활력이 아니 조직에도 이득이 생긴다. 81년생 지속해서 나가는 자세로 영업에 몰두하자. 93년생 재개발문서가 해결될 것이나 기다려야.	
 개	46년생 저녁에 일찍 귀가하여 지출을 줄이자. 58년생 노력하여 일이 풀리니 근심이사라진다. 70년생 혼자만의 명성을 해보라. 82년생 남의 눈치보다는 노력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94년생 가족회의로써 의논하여 일의 성취가 된다.	
 돼지	47년생 공짜 좋아하다 망신 수가 발생. 59년생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먼저 베풀어라. 71년생 분수를 알면 행운이 찾아온다. 83년생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95년생 언제나 종이 매 처리 못 꾸이니 협조정신을 발휘.	



김상회의四季

이렇게 좋은 날

올해부터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지라 월요일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그 가르침을 멋지게 체득한 분의 첫째가 원효대사가 아닐까 싶다. 너무 유명하여 상식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 해골물 일화를 잠시 소개해 본다. 신라시대 때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당대의 촉망받던 스님들이었다. 보다 원웅하게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함께 당나라로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캄캄한 숲을 헤매다가 겨우 마땅한 휴식처를 발견하여 하룻밤 쉬어가기로 한다.

비 오는 밤 산길을 헤맨 터라 바로 잠이 들었고 목이 마른 나머지 깨어 물을 찾던 중 어둠 속에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발견하니 맛있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잠에서 깨어나 보니 잠을 잔 곳은 움막이 아니라 파헤쳐진 무덤 속이었다. 게다가 원효스님이 맛있게 잠결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여 있던 물이었다. 분명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고 달콤했던 물이 해골에 담겨 있던 물이라는 것을 알자 더럽게 느껴지고 구역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 물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그 유명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를 단박에 체득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시 신라로 돌아온다. 그 후의 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효스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첫 손에 꼽히는 대각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좋은 날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구절이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그분, 스스로 바르게 진리에 이르신 분 정등각자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을 드려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6		2		9
		3			1
			3	5	
3					4
		4	1	9	3
1					9
			9	6	
		8			9
	2		1		7

			5		3			
	1						8	
		3		6		7		
2		1		3		9		5
3								6
5		8		7		1		3
		2		4		6		
	3							9
			3		6			

정답

8	7	5	1	9	9	2	6
9	8	6	7	2	8	1	9
1	9	2	9	8	6	7	5
6	9	7	5	8	2	9	1
2	8	6	9	1	7	2	9
7	1	9	2	7	9	6	8
7	2	9	9	6	8	1	7
9	7	1	8	9	7	6	2
8	6	1	2	7	9	9	7

7	1	9	9	2	8	7	6
8	6	2	9	1	7	9	5
7	8	9	8	7	6	2	9
9	7	1	2	7	9	8	6
2	8	6	9	1	7	2	9
9	7	1	8	9	7	6	2
6	9	7	1	9	2	8	7
2	8	8	7	6	7	9	1
1	9	7	8	9	6	2	7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